



병원원보에 나타난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 비교

박선아¹⁾ · 권혜진²⁾ · 김혜진³⁾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인 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백의의 천사’, ‘희생과 봉사’, ‘여성의 직업’ 등이었다(Hallam, 1998; Lusk, 2000). 그러나 최근 건강관리체계 내에서 간호사는 환자치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문, 잡지, 저널 등 약 20,000개의 기사에 대한 분석연구에서도 간호의 전문성이 미디어와 미국 대중들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대중매체 중 4%만이 간호사에 관해 언급하였다(Manthey, 1999). Norwood(2001)의 연구에서도 100개의 건강관련 잡지에 나타난 기사에서도 96개가 의사에 관한 내용이었다. 간호사 이미지 형성은 자신이나 가족의 입원 등으로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강혜영, 고미혜, 양진주와 김선미, 2003), 간호사와의 개인적인 경험이 대중매체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Fletcher, 2007, 재인용). 그러므로 대중들에게 간호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중매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 및 그림은 글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커서 대중들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Fletcher, & Bowers, 1988). 대중매체와 관련된 간호사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져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Kalisch와 Kalisch(1986)는 소설, TV, 영

화, 인터넷 등 여러 다양한 매체에서 나타난 간호 이미지에 대해 연구를 했으며 주로 기사, 내용, 장면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하였다. 국내의 연구도 신문(정면숙과 강영실, 1993), TV드라마(임미림, 1996),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이미지 연구가 있다(최형욱, 2006). 의학 및 간호학 잡지 또는 일반 잡지의 광고 사진을 분석하여 간호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로는 Aber와 Hawkins(1992), Krantzler(1986), Lusk(2000), Norwood(2001)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진을 사용하여 간호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드물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병원원보는 일반인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발간되는 대중매체는 아니다. 그러나 관련 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매체이므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간호사와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내의 주요병원에서 발간되는 병원원보에 나타난 간호사와 의사의 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사진 속에 투영되는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 시 간호직의 전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법을 규명하여 추후 간호사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의 정기 간행물인 병원원보의 간호사와 의사의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간호사와 의사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추후 간호사의 이미지 정책이나 캠페인을 시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간호사의 이미지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데

주요어: 간호사, 이미지, 사진

1) 제1저자: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생, 2)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3) 중앙대학교용산병원 간호사

* 본 논문은 2008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 발췌·수정된 논문임

투고일: 2010년 5월 31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21일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병원원보의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와 의사 이미지를 확인한다.
- 2) 간호사의 유형별 단독사진과 복합사진(간호사와 의사)을 비교 분석한다.
- 3) 의사의 유형별 단독사진과 복합사진(간호사와 의사)을 비교 분석한다.

3. 용어의 정의

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인식의 표출이다(Kalisch, & Kalisch, 1986). 본 연구에서는 병원원보의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의 인상, 행동, 간호행위 등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2) 병원원보

병원을 하나의 조직으로 볼 때, 이 조직에서 발행하는 병원원보는 사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보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 모든 조직체가 발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며, 대내외 공중과 후호적 관계를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이다(강승구, 1993).

II. 문헌고찰

간호 이미지는 사람들이 간호나 간호사에 대해 갖는 신념, 생각, 인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Kalisch, & Kalisch, 1986). 국내에서 간호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간호학 분야에 있어서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갖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었으며(강혜영 등, 2003; 김선영, 2004; 정면숙, 2004; 이순희와 김정아, 2006), 환자 및 보호자 군이 의사 및 병원직원 등에 비해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자와 김현옥, 2001; 송인자, 1993; 양일심, 1998; 정면숙, 2004). 긍정적 간호사 이미지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책임감이 강하며', '직업에 대한 긍지' 등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많았는데(강혜영 등, 2003; 김선영, 2004; 이순희와 김정아, 2006; 양일심, 1998; 정면숙, 2004), 이는 간호사가 전문직 집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간호협회(2006)에서 일반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간호 이미지에 대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국민 10명 중 9명

(91.1%)이 '간호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3.4%에 이르렀다. 간호사에 대한 호감도도 높게 나타나서 '가족 중에 간호사가 한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9.2%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김금희 등, 1999; 송인자, 1993; 양일심, 1998)와 반대되는 결과로 변화된 간호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간호의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간호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부족, 그리고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다(김금희 등, 1999; 김형자와 김현옥, 2001; 송인자, 1993).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생은 간호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금희, 1998). 국외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Hemsley-Brown, & Foskett, 1999; Fletcher, 2007, 재인용). 1990년대 국내 연구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간호사를 시키고 싶다'라는 항목에 가장 낮은 긍정을 보였다(김금희 등, 1999; 송인자, 1993; 양일심, 1998). 최근 간호가 전문화, 다양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담자'나 '건강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다(김금희 등, 1999; 김형자와 김현옥, 2001; 양일심, 1998; 정면숙, 2004).

역사적으로 대중매체에서 보여지는 간호사의 대중이미지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서 묘사(Kalisch, & Kalisch, 1986)되었으나, 특별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간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표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30년과 1940년의 전쟁시기에서의 간호 이미지는 대중들에 의해서 가장 존경받고 선망의 직업으로 인식되었으며(Hallam, 1998), 간호업무에서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모습(Lusk, 2000)을 보여주었으며, 캐나다의 SARS 위기에서 미디어는 간호사를 영웅 및 전문직으로 묘사하였다(Hall 등, 2003). 각 매체별로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국내의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신문의 기사들은 간호사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주로 전문적인 간호 업무나 활동에 관한 기사가 많았다(정면숙과 강영실, 1993). TV드라마에서는 간호사의 78.4%가 주변인물로 묘사되었다(임미림, 1996). 교과서에 나타난 간호이미지 연구(최형욱, 2006)에서는 교과서 13과목 130권에 나타난 간호관련 내용의 수가 70회였으며, 이중 30회는 긍정적인 이미지, 21회는 부정적 이미지, 19회는 중립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병원 잡지나 일반 잡지의 사진(Aber, & Hawkins, 1992; Lusk, 2000; Norwood, 2001)에서의 간호 이미지는 여성적인 고정관념 수준에서 묘사되어 있다(Lusk, 2000). 대중매체에서 투영되는 간호사의 전문적 이미지가 현실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간호사의 이미지가 대중에게 전달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Dracup, & Bryan-Brown, 1998; Norwood, 2001). Dracup와 Bryan-

Brown(1998)는 잡지 등에서 간호사들이 건강정보의 제공자로 묘사되는 일이 드문 것은 간호사를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성적 인 차별과 간호직에 대한 전통적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감안할 때 간호사 이미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와는 달리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현저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 대중이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을 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병원원보에 나타난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병원원보에 실린 간호사와 의사의 사진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8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병원원보를 수집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병원원보를 발행하는 병원의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 병원의 규모가 최소 2,000병상 이상이거나, 3개 이상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병원 중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한 2곳의 병원과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한 2곳의 병원을 선정하였다. 가능한 최근의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가 사진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최근 3년간(2005년, 2006년, 2007년)의 병원원보를 선택하였다. 이중 1곳의 병원은 1개월에 2번 발간되고, 나머지 3곳은 1개월에 1번씩 발간되었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병원원보의 총수는 180권이였다. 여기에서 간호사만 등장하는 사진은 198개, 의사만 등장하는 사진은 428개, 간호사와 의사가 같이 등장하는 사진(복합사진)은 193개이였으며 3대상의 유형별 사진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각 155개씩 균등하게 임의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사진의 선정은 계통적 표출법에 따라 4곳의 병원 모두에서 간호사 단독사진과 복합사진은 6번째에 해당하는 사진을 제외시키고, 의사 단독사진의 경우에는 3곳의 병원에서는 격 번으로 제외시키고, 1곳의 병원에서는 3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해서 각각 155개씩 총 465개의 사진을 선택하였다.

3. 연구도구

1) Goffman's Gender Analysis

본 연구는 기존 대중매체에 나타난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자주 적용되어 온 Goffman(1976)의 분석방법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경우에서도 Goffman(1976)의 분석항목을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Lindner,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도 Goffman(1976)의 6가지 분석 항목 '상대적 크기', '여성적인 자세 및 접촉', '역할 순위', '가족장면', '종속적인 투영', '비전문적 투영'에서 '가족 장면'은 가족을 표현하는 사진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분석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종속적인 투영'은 세부항목들이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고, 미소를 보여주고, 환자 옆에 있어주는 것이 간호사의 경우에서는 모성적인 역할의 모습(Kalisch, & Kalisch, 1983)으로 간호사의 속성에 맞게 '모성적 투영'으로 항목의 이름을 수정하였다. 또한, 분석 항목에 '위치'와 '전문직 역할'의 2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위치'는 기존 Goffman의 분석 틀이 대개의 경우 단독 모델 등을 연구에 사용하여 '위치' 항목이 없었으나 Lusk(2000)의 연구에서 Goffman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서 '위치' 항목을 추가하여 단체사진에서의 간호사 모습을 분석하였다. '전문직 역할'은 간호사와 의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사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직 역할'과 '비전문직 역할'이라는 항목을 따로 분리하여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항목은 '상대적 크기', '여성적 자세 및 접촉', '역할 순위', '모성적 투영', '비전문적 투영', '위치', '전문직 역할'의 7개 항목이다.

수정된 도구는 Goffman의 도구에 충분한 연구경험이 있는 광고홍보전공 교수 1인과 간호학전공 교수 3인이 논의와 검토를 하였으며 도구의 모든 문항에 대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로서 본 연구자는 광고홍보학전공 교수부터 수차례에 걸친 교육을 받았다. 코딩이 끝난 후 상호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표본의 약 10%인 40개의 사진을 광보홍보학 교수와 교차 코딩하였다. 코딩간 신뢰도는 Holsti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하였고(Wimmer, & Dominick, 1994/2005) 상호신뢰도는 93.2%였다.

2) 분석 항목 및 조작적 정의

(1) 전문직 역할-전문적인 기술 수행, 상담 및 교육, 집단의 의, 기타 (2) 상대적 크기-대상인물 간의 크기에서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에는 원근법도 포함된다. (3) 여성적 자세 및 접촉-대상자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얼굴에 대고 있는 등의 자신의 신체 일부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나, 주변의 사람이거나 어떤 물체를 접촉하는 모습을 말한다. (4) 역할 순위-대상인물

이 직업적인 면에서 낮은 역할이나 보조적인 역할로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 (5) 모성적 투영-결에 있어주기 등 신체적으로 자세를 낮춤,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 머리카나 몸을 비스듬히 하는 자세, 다른 사람에게 미소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6) 비전문적 투영-대상인물이 주변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로, 고개나 눈동자를 아래로 회피하고 있는 경우, 수줍음, 양 손가락을 서로 맞대는 모습 등을 말한다. (7) 위치-단체사진에서 뒷자리나 가장자리에 위치, 뒷모습 또는 옆모습, 기타를 말한다.

4. 자료분석방법

- 1) 병원원보의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는 각 분석항목과 세부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간호사와 의사의 유형별 단독사진과 복합사진에 대한 이미지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 분석

병원원보의 사진에서 각각의 분석항목에 따른 간호사와 의사의 투영을 살펴보면 7개의 분석항목 중 ‘전문직 역할 수행’의 항목에서 간호사와 의사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간호사=71, 의사=93). 양 직종 모두 ‘전문적 기술의 사용’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상담 및 교육’의 수행이 그 다음이었다. 간호사의 경우, ‘집단회의(n=4)’와 ‘기타 전문 역할(n=5)’이 의사의 경우보다 많이 나타났다. ‘상대적 크기’에 따른 표현은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높은 빈도를 보였다. 간호사가 등장한 사진들 중 24.8%가 ‘상대적 크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이루어진 데에 반하여, 의사는 3.9%의 사진들이 이에 해당하였다. ‘작고 왜소함’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는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상대적 크기’가 나타난 전체 77개의 사진들 중 75개가 간호사(들)이 작거나 왜소하게 보였다. ‘여성적 자세 및 접촉’에 따른 표현에서는 간호사는 22.6%, 의사는 11.3%로 나타났다. 간호사, 의사의 대부분이 양손을 포개는 모습을 보여주는 ‘손이나 얼굴 접촉’이었으며, 간호사의 경우에서만 전체 70개의 사진들 중 3개에서 여성적 자세를 보여주는 섬세하게 표현된 사진이었다. 간호사의 19.7%, 의사는 2.3%의 사진들이 ‘역할 순위’에 따른 표현에 해당하였다. ‘보조적 역할’의 항목은 전체 61개의 사진 중 24개를 차지하였으며, ‘기

타’는 37개의 사진이 해당하였다. ‘모성적 투영’에 따른 표현은 간호사 34.2%, 의사는 13.9%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 중 ‘미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적으로 낮춤’이었다. ‘비전문적 투영’의 경우 간호사는 20.6%, 의사는 8.4%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머리카나 눈을 아래로 함’이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기타’, ‘수줍음’, ‘양손가락을 접촉하는 모습’ 순이었다. 의사의 경우에도 ‘머리카나 눈을 아래로 함’, ‘기타’ 순이었다. ‘위치’에 따른 표현은 간호사 21.3%, 의사 6.1%로 나타났으며, 양 직종 모두 ‘가장자리 및 뒤쪽’에서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표 1).

2. 간호사의 유형별 단독사진과 복합사진의 비교분석

병원원보의 사진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가 어떻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간호사의 유형별 단독사진과 복합사진을 교차분석하여 살펴보았다(표 2). 간호사 이미지에서는 ‘여성적 자세 및 접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직 역할 수행’에서는 간호사 단독으로 등장할 경우, 전문 역할을 수행하는 빈도가 전체 간호사 사진들 중 38.1%를 차지하고, 의사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7.7%가 전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1$). ‘상대적 크기’에서는 전체 간호사 단독사진에서 5.8%가 작게 표현되었으며, 의사와 함께 있는 결과에서는 43.9%가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되었다($p<.001$). ‘역할 순위’에서는 단독사진은 14.2%, 복합사진은 25.2%에서 간호사가 낮은 역할 순위로 표현되었다($p<.05$). ‘모성적 투영’은 단독사진의 42.6%, 복합사진의 25.8%에서 나타났으며($p<.01$), ‘비전문적 투영’은 단독사진 25.8%, 복합사진 15.5%에서 나타났다($p<.05$). ‘위치’는 간호사만 등장하는 경우는 9.0%, 의사와 함께 등장했을 때는 33.5%에서 뒷자리에 서있거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p<.001$).

3. 의사의 유형별 단독사진과 복합사진의 비교분석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문직 역할’과 ‘모성적 투영’의 2개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전문직 역할’은 의사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에 44.5%의 사진들이 전문 역할을 보여주었으며, 간호사와 같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14.2%에서 나타났다. 복합사진에 있어서 전문 역할이 더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간호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 < .001$). '모성적 투영'은 의사의 단독사진 23.9%, 복합사진 3.9%에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표 1〉 분석 항목에 따른 간호사 및 의사의 투영

항 목	간호사			의 사			n(%)
	간호사 (n=155)	복합* (n=155)	전체 (n=310)	의사 (n=155)	복합* (n=155)	전체 (n=310)	
전문직 역할	59(38.1)	12(7.7)	71(22.9)	69(44.5)	24(15.5)	93(30.0)	
전문적 기술 수행	41(26.5)	12(7.7)	53(17.1)	59(38.1)	24(15.5)	83(26.8)	
상담 및 교육	9(5.8)	0(0.0)	9(2.9)	8(5.2)	2(1.3)	10(3.2)	
집단회의	4(2.6)	0(0.0)	4(1.3)	1(0.6)	0(0.0)	1(0.3)	
기타 역할	5(3.2)	0(0.0)	5(1.6)	1(0.6)	0(0.0)	1(0.3)	
상대적 크기	9(5.8)	68(43.9)	77(24.8)	5(3.2)	7(4.5)	12(3.9)	
작고 왜소함	5(3.2)	70(45.2)	75(24.2)	5(3.2)	7(4.5)	12(3.9)	
기타	5(3.2)	2(1.3)	7(2.3)	0(0.0)	0(0.0)	0(0.0)	
여성적 자세 및 접촉	30(19.4)	40(25.8)	70(22.6)	17(11.0)	18(11.6)	35(11.3)	
손이나 얼굴 접촉	29(18.7)	39(25.2)	68(21.9)	17(11.0)	18(11.6)	35(11.3)	
섬세하게 표현	1(0.6)	2(1.3)	3(1.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역할 순위	22(14.2)	39(25.2)	61(19.7)	4(2.6)	3(1.9)	7(2.3)	
보조적 역할	0(0.0)	24(15.5)	24(7.7)	1(0.6)	0(0.0)	1(0.3)	
기타	22(14.2)	15(9.7)	37(12.3)	3(1.9)	3(1.9)	6(1.9)	
모성적 투영	66(41.5)	40(25.8)	106(34.2)	37(23.9)	6(3.9)	43(13.9)	
신체적으로 낮춤	27(17.4)	15(9.7)	42(13.5)	16(10.3)	2(1.3)	18(5.8)	
무릎을 구부림	1(0.6)	4(2.6)	5(1.6)	1(0.6)	0(0.0)	1(0.3)	
머리나 신체의 기울임	7(4.5)	2(1.3)	9(2.9)	2(1.3)	1(0.6)	3(1.0)	
미소	46(29.7)	27(17.4)	73(23.5)	17(11.0)	3(1.9)	20(6.5)	
팔짱 및 어깨 두름	2(1.3)	1(0.6)	3(1.0)	2(1.3)	1(0.6)	3(1.0)	
기타	2(1.3)	0(0.0)	2(0.6)	1(0.6)	7(4.5)	8(2.6)	
비전문적 투영	40(25.8)	24(15.5)	64(20.6)	16(10.3)	10(6.5)	26(8.4)	
머리나 눈을 아래로 함	14(9.0)	9(5.8)	23(7.4)	5(3.2)	4(2.6)	9(2.9)	
양손가락의 접촉	6(3.9)	5(3.2)	11(3.5)	2(1.3)	2(1.3)	4(1.3)	
수줍은 표정	12(7.7)	4(2.6)	16(5.2)	4(2.6)	1(0.6)	5(1.6)	
기타	14(9.0)	7(4.5)	21(6.8)	5(3.2)	3(1.9)	8(2.6)	
위치	14(9.0)	52(33.5)	66(21.3)	11(7.1)	8(5.2)	19(6.1)	
가장자리 및 뒤쪽	1(0.6)	46(29.7)	47(15.2)	3(1.9)	8(5.2)	11(3.2)	
뒷모습 또는 옆모습	9(5.8)	5(3.2)	14(4.5)	7(4.5)	2(1.3)	9(2.9)	
기타	6(3.9)	5(3.2)	11(3.5)	1(0.6)	2(1.3)	3(1.0)	

*복합: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 등장한 사진

〈표 2〉 간호사의 사진 유형별 교차분석

항 목	사진의 구분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합 계	Chi-square	n(%)
전문직 역할	간호사 단독	59(38.1)	96(61.9)	155(100.0)	40.355***	
	간호사+의사	12(7.7)	143(92.3)	155(100.0)		
	합 계	71(22.9)	239(77.1)	310(100.0)		
상대적 크기	간호사 단독	9(5.8)	146(94.2)	155(100.0)	60.148***	
	간호사+의사	68(43.9)	87(56.1)	155(100.0)		
	합 계	77(24.8)	233(75.2)	310(100.0)		
여성적 자세 및 접촉	간호사 단독	30(19.4)	125(80.6)	155(100.0)	1.845	
	간호사+의사	40(25.8)	115(74.2)	155(100.0)		
	합 계	70(22.6)	240(77.4)	310(100.0)		
역할 순위	간호사 단독	22(14.2)	133(85.8)	155(100.0)	5.898*	
	간호사+의사	39(25.2)	116(74.8)	155(100.0)		
	합 계	61(19.7)	249(80.3)	310(100.0)		
모성적 투영	간호사 단독	66(42.6)	89(57.4)	155(100.0)	9.691**	
	간호사+의사	40(25.8)	115(74.2)	155(100.0)		
	합 계	106(34.2)	204(65.8)	310(100.0)		
비전문직 투영	간호사 단독	40(25.8)	115(74.2)	155(100.0)	5.041**	
	간호사+의사	24(15.5)	131(84.5)	155(100.0)		
	합 계	64(20.6)	246(79.4)	310(100.0)		
위치	간호사 단독	14(9.0)	141(91.0)	155(100.0)	27.797***	
	간호사+의사	52(33.5)	103(66.5)	155(100.0)		
	합 계	66(21.3)	244(78.7)	310(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의사의 사진 유형별 교차분석

항 목	사진의 구분	나타남	나타나지 않음	합계	Chi-square	n(%)
전문직 역할	의사 단독	69(44.5)	86(55.5)	155(100.0)	34.361***	
	간호사+의사	22(14.2)	133(85.8)	155(100.0)		
	합 계	91(29.4)	219(70.6)	310(100.0)		
상대적 크기	의사 단독	5(3.2)	150(96.8)	155(100.0)	0.347	
	간호사+의사	7(4.5)	148(95.5)	155(100.0)		
	합 계	12(3.9)	298(96.1)	310(100.0)		
여성적 자세 및 접촉	의사 단독	17(11.0)	138(89.0)	155(100.0)	0.032	
	간호사+의사	18(11.6)	137(88.4)	155(100.0)		
	합 계	35(11.3)	275(88.7)	310(100.0)		
역할 순위	의사 단독	4(2.6)	151(97.4)	155(100.0)	0.146	
	간호사+의사	3(1.9)	152(98.1)	155(100.0)		
	합 계	7(2.3)	303(97.7)	310(100.0)		
모성적 투영	의사 단독	37(23.9)	118(76.1)	155(100.0)	25.948***	
	간호사+의사	6(3.9)	149(96.1)	155(100.0)		
	합 계	43(13.9)	267(86.1)	310(100.0)		
비전문직 투영	의사 단독	16(10.3)	139(89.7)	155(100.0)	1.511	
	간호사+의사	10(6.5)	145(93.5)	155(100.0)		
	합 계	26(8.4)	284(91.6)	310(100.0)		
위치	의사 단독	11(7.1)	144(92.9)	155(100.0)	0.505	
	간호사+의사	8(5.2)	147(94.8)	155(100.0)		
	합 계	19(6.1)	291(93.9)	310(100.0)		

* $p < .05$, ** $p < .01$, *** $p < .001$

V. 논 의

본 연구는 병원원보의 사진에 나타나는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를 확인, 비교분석하여 간호사의 이미지가 보다 긍정적으로 투영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원보의 총 180권에서 간호사만 나온 사진은 198개, 의사만 나오는 사진은 428개로 간호사의 사진이 의사와 동등한 수로 나타나지 않고, 의사의 절반 수준으로 보여 지고 있었다. 이것은 최형욱(2006)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와 정면숙과 강영실(1993)의 신문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에서도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대중들이 간호 역할에 대하여 모호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간호 역할에 대한 인지와 지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볼 때, 여러 매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간호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이 전문적인 역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간호사는 단독 사진의 경우 155개에서 59개가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진이었으며, 의사의 경우에는 155개 중 69개였다. 이것은 간호사와 의사의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간호사의 이미지가 과거에 비하여 전문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의 인식 변화가 되고 있는(대한간호협회, 2006)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진이 보여준 전문직 역할 수행의 대부분은 투약, 활력징후 측정 등의 기본간호 제공이 대부분으로 '상담 및 교육', '집단회의(컨퍼런스 등)' 등의 모습은 소수의 사진에서만 보여주고 있어 간호 전문직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상담이나 교육자의 역할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김금희 등, 1999; 양일심, 1998; 최형욱, 2006) 기존연구와 유사하다. '상대적 크기'와 관련하여 의사가 신체적으로 작게 보이는 모습이 적은 데 반하여 간호사는 의사와 함께 있을 때 43.9%가 신체적인 크기에서 작게 보였다. Goffman(1976)은 명성, 권위와 같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진에서 상대적으로 키나 체격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사진에서도 카메라의 포커스를 의사에게 두어 의사가 앞쪽에서 더 크게 보이고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뒤쪽에서 작게 나타났다. '여성적인 자세 및 접촉'의 항목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적인 자세나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긴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정면을 향하지 않고 15° 정도의 각도로 옆으로 서있거나 양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포개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간호사 본인이 여성으로서 '다소곳함', '차분', '침착', '예쁘게 보임' 등의 인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나, 우리나라의 전

통적인 유교사상으로 겸손, 공경 등의 관습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의사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종종 나타났다. 또한 사진에서 간호사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으며, 남자 간호사가 나오는 사진은 단 1개만 있었다. 이것은 최형욱(2006)의 교과서 연구에서 사진이나 그림에서 간호사의 모습이 대부분 여성인 것과 일치한다. '역할순위'를 살펴보면 간호사의 직업적인 지위나 위치는 의사와 함께 있을 때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25.5%만이 이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의 사진에서는 의사가 진료 중인 환자 옆에서 간호해주는 간호사의 모습이 15.5%로 최형욱(2006)의 연구 32.7%보다 적게 나타났지만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교육을 받는 모습, 상장을 수여받는 모습, 그리고 지시받는 모습도 나타났다. '모성적 투영'에 따른 표현에서는 간호사와 의사 모두에게서 나타났으며, 각각 단독의 사진에서 많이 나타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하지만 빈도의 측면에서 간호사 42.6%, 의사 23.9%로 간호사에서 더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에서 '미소'가 간호사에게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미소'는 기쁨에 찬 미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지어보이는 미소를 말한다. Lusk(2000)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의사보다 '미소'의 모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Goffman(1976)은 이런 미소는 수용한다는 대답이며,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 '수동적인 투영'에 따른 표현은 간호사가 의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모습은 수줍은 미소로 고개를 아래로 내리는 행위와 상장을 수여 받는 모습에서 고개와 눈을 아래로 향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의사는 상대방과 같은 눈높이에 있거나 정면을 바로 응시하는 모습이 많았다. Lusk(2000)의 연구에서도 간호사는 의사 및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고 있을 때 눈의 시선을 바닥에 두거나, 한 발자국 뒤에서 참관하는 것 같은 이미지 등 중심인물로 표현되고 있지 않았다. '위치'에 따른 표현에서는 간호사가 단체사진에서 가장자리나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66개로 이중 52개는 의사와 함께 있는 사진에서 나타났다. 이는 병원 단체 사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병원의 주요 행사에 다수의 관리직 의사와 1~2명 정도의 간호관리자가 참석하며, 또 이들의 위치는 가장자리나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그 외 다른 단체 사진에서도 의사는 앞줄에 앉았고 간호사는 뒷줄에서 있는 등의 모습이 있었다.

본 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간호사 이미지에 인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전문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적이며 모성적인 이미지가 부분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간호사의 모습이 의사보다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호사 개개인이 간호사의

대중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와 의사의 이미지가 병원원보의 사진에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고찰을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전문직인 역할의 이미지는 간호사와 의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사와 관련된 사진은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전반적으로 간호사는 여성적이며 모성적인 이미지로 표출되었다. 단체사진에서의 간호사는 주로 가장자리나 뒤쪽에 위치하는 반면 의사는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병원원보의 사진 촬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상대적 크기'에서 간호사의 모습이 작고 왜소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앞줄에 위치하거나, 간호사에게 포커스를 두게 한다.
 - 2) 자신의 손을 신체의 일부(얼굴 등)에 접촉하거나, 섬세한 여성적 자세의 모습은 되도록 삼가하여 '여성적인 자세 및 접촉'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3)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며, 양팔은 자연스럽게 양 옆 허리에 대어 수줍은 모습이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비전문적인 투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4) 단체사진의 경우에서는 가장자리나 뒷줄에 위치하지 않으며, 자신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 5) 의사로부터 상장을 수여받는 고개 숙인 모습 보다 상장을 올려 들고 있는 모습과 간호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교육하는 모습이 사진에 나타나도록 한다.
- 또한 추후 여러 대중매체(신문, 인터넷 등)에서의 간호사 이미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승구(1993). *기업문화 형성에 미치는 사보의 기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강혜영, 고미혜, 양진주, 김선미(2003). 고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대한간호학회지*, 33(6), 792-801
 김금희, 김묘경, 권선옥, 김성숙, 김영미, 류보영 등(1999). 간

호이미지에 관한 조사 연구-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일반을 대상으로-. *임상간호연구*, 5(1), 5-28
 김선영(2004). *일 지역 간호사와 환자가 지각한 간호사 이미지*.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김형자, 김현옥(2001).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7(1), 97-110
 대한간호협회(2006). KNA 포커스02: '한국갤럽·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이미지 여론조사. *대한간호*, 11/12월호, 6-7. 2008, 5, 24.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pdf/kornur_20061112.pdf에서 인출
 송인자(1993). 간호이미지에 관한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 및 일반인의 견해 비교분석. *대한간호*, 33(2), 51-62.
 양일심(1998). 간호사이미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4(2), 289-306.
 이순희, 김정아(2006). 간호과 학생들과 비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사 이미지와 결정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2(1), 52-62.
 임미림(1996).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정면숙(2004). 병원의 내부마케팅 제고를 위한 간호사 이미지 비교 연구 - 병원의 내부, 외부고객을 중심으로 -. *임상간호연구*, 9(2), 68-80.
 정면숙, 강영실(1993). 신문에 나타난 간호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3(1), 16-28.
 최형욱(2006). *제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간호 이미지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진주.
 허금희(1998). *대구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관한 조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Aber, C. S., & Hawkins, J. W. (1992). Portrayal of nurses in advertisements in medical and nursing journals. *Image--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4), 289-293.
 Dracup, K., & Bryan-Brown, C. W. (1998). The invisible profession.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7(4), 250-252.
 Fletcher, A. D., & Bowers, T. A. (1988). *Fundamentals of Advertising Research* (3rd ed.). Belmont, CA: Wadsworth.
 Fletcher, K. (2007). Image: Changing how women nurses think about themselves.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8(3), 207-215.
 Goffman, E. (1976). *Gender Advertisement*. London, UK: MacMillan.

- Hall, L. M., Angus, J., Peter, E., O'Brien-Pallas, L., Wynn, F., & Donner, G. (2003). Media portrayal of nurses' perspectives and concerns in the SARS crisis in Toronto.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5(3), 211-216.
- Hallam, J. (1998). From angels to handmaidens: Changing construction of nursing's public image in post-war Britain. *Nursing Inquiry*, 5(1), 32-42.
- Hemsley-Brown, J., & Foskett, N. H. (1999). Career desirability: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nursing as a care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9(6), 1342-1350.
- Kalisch, B. J., & Kalisch, P. A. (1983). Anatomy of the image of the nurse: Dissonant and ideal models. *American Nurses Association Publications*, 3-23. Retrieved February 5, 2008, from http://www.nursingadvocacy.org/images/kalisch/anatomy_of_the_image_of_the_nurse_ocr.pdf
- Kalisch, P. A., & Kalisch, B. J. (1986).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e and physician characters in the entertainment med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1(2), 179-195.
- Krantzler, N. J. (1986). Media images of physicians and nurse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22(9), 933-952.
- Lindner, K. (2004). Images of women in general interest and fashion magazine advertisements from 1955 to 2002. *Sex Roles*, 51(7/8), 409-421.
- Lusk, B. (2000). Pretty and powerless: Nurses in advertisements, 1930-1950.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3(3), 229-236.
- Manthey, M. (1999). Nursing's image with the press. *Creative Nursing*, 5(4), 4-7.
- Norwood, S. L. (2001). The invisibilit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in popular magazin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13(3), 129-133.
- Wimmer, R. D., & Dominick, J. R. (2005). *매스미디어 조 사방법론*(유재천, 김동규 역). 파주: 나남.(원저 1994 출판)

The Portrayal of Nurses and Physicians in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Park, Sun Ah¹⁾ · Kwon, Hye Jin²⁾ · Kim, Hye Jin³⁾

1)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3) RN, Nursing Department, Chung-Ang University Yong-San Hospital

Purpose: The current study was done to describe how nurses are portrayed in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as compared with physicians. **Methods:** A content analysis of the pictures was conducted using the framework of Goffma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ll issues of four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published in 2005, 2006, and 2007 (n=465). **Results:** Overall, the analysis indicates that nurses were portrayed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nity and mothering. In group scenes, nurses were pictured as peripheral, compared with physicians. Sometimes the photos did not focus on nurses at all. Nurses were also placed standing in the periphery not like physicians at the center of the scene. In terms of professional portrayal, the photos in general present positive image of nurses similar to that of physicians. However, the number of photos including nurses was relatively small.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es appear less frequently in mass media and when they do it is at the periphery of the scene. It is, then, necessary

to make greater effort to call upon mass media to cover more nurses showing a positive images of the profession. All stake holders such as individual nurses, hospitals and related associations should make a combined effort toward that end.

Key words: Nurse, Image, Photo

Corresponding author: Kwon, Hye Jin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221, Heukseokdong, Dongjakgu, Seoul 156-756, Korea
Tel: 82-2-820-5678, E-mail: kwonhj@cau.ac.kr